

<古風>59首에 나타난 李白의 自我

윤 석 우*

<목 차>

1. 序論
2. 本論
 - 2.1 분석 방법론-주격자아와 목적격자아
 - 2.2 李白의 주격자아의 형성: 謫仙人과 功成身退
 - 2.3 功臣으로서의 주격자아와 타인들의 인정 여부
 - 2.4 謫仙人으로서의 주격자아로 회귀
3. 結論

1. 序論

일반적으로 唐代의 시인 李白(701~762)의 작품은 낭만적이고 천재적이며 과장적인 측면이 풍부하다고 일컬어져 왔다. 필자는 이러한 측면의 이면에는 李白만의 복잡하고 치열한 심리적 자기고민이 담겨 있다고 보고, 이러한 李白의 고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李白의 심리와 고민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는 그 내용의 진중함과 심각성으로 보았을 때 <古風>59수를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이 <古風>59수는 李白 특유의 과장적이고 낭만적인 유희적 면모를 가급적 배제하고, 李白 자신의 깊은 심리적, 내적 고민을 담았다고 역대로 평가 받고 있다.¹⁾

* 仁德大學校 中國語科 副教授

1) <古風>59首에 대한 역대의 평가에 대해서는 최우석, <李白<古風>59首의 창작상의 '繼承'과 '創新' >《中國語文論叢》 第71輯 2015. 10. 129-131쪽을 참조.

李白 詩集의 가장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²⁾ <古風> 59수는 서로 다른 시기에 지어진 59수의 五言古詩 형식의 작품들이 <古風>이라는 題下에 묶여진 일련의 組詩이다. 편폭은 다양하며, 구성과 체제 및 내용은 阮籍(210~263)의 대표작 <詠懷> 82수와, 初唐시기의 陳子昂(659~702)의 <感遇>시를 계승한다고 여겨지고 있다.³⁾ 시의 내용은 諷諭와 遊仙, 詠懷 등으로 구성되며, 주로 자신에 대한 깊은 심리적 고민과 세태에 대한 한탄, 시국에 대한 비판 등 진중하고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李白的 심리적 고민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우선 그의 생애를 간단히 조망해 보면 唐 玄宗시기 長安 궁정에서 翰林학사로 근무하던 3년간⁴⁾과 永王 李璘의 군대에 從軍한 시절을 제외하면 특별히 출세한 시절이 없이 懷才不遇의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李白은 스스로의 천재성과 재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발휘하여 멋진 공을 세운 뒤 이에 연연하지 않고 은퇴하려 한다(功成身退). 하지만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바, 자신의 재능과 천재성에 대해서 '타인의 인정'이 없이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인정한다면 이는 자폐적이고 自慰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李白의 고민은 스스로에 대한 자아의식, 즉 자신은 천재적이고 재능이 있다는 자기인식과 이에 대한 '타인의 인정'이 서로 괴리된다는 데 그 고민이 있다고 생각된다. 賀知章(약659~약744)과 같이 자신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이를 인정해준 이도 있지만, 황제(玄宗)를 비롯한 대부분의 고관대작들은 李白의 자기인식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李白의 '자기인식'과 '타인의 인정'이 어떤 양상으로 서로 괴리감을 보이고 갈등을 드러내는가를 살펴보고자 하

2) 가장 이른 판본으로 보이는 日本 靜嘉堂文庫 소장본 宋刊本 『李太白文集』부터 <古風>가 가장 앞에 놓인다. 현재의 편목은 대체로 淸 王琦가 편찬한 <李太白文集>의 편목 순서를 따르고 있다. 李白의 <古風>이 59수로 모아진 뒤 편집 체제에서 詩集의 가장 앞으로 놓인 것은 누가 처음에 그렇게 편찬했는지는 未詳이나, 아마도 편찬자가 詩體로 보았을 때 가장 古風스러운 체제를 갖추고 있고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심도 있는 작품들을 앞부분에 배치하였을 것이다. <古風> 59수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강필립, <古風> 59수의 문학사상과 그 창작실천, 《중국문학연구》 17집, 1998. 66-67쪽 참조.

3) 위의 책, 64쪽.

4) 天寶元年(742)에서 三年(744)까지의 시기로 李白의 나이 42-44세 때이다.

는 것이 본고의 논점이다. 이런 깊은 고민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선별하여 살펴보고자 李白의 작품을 검토한 결과 위에서 언급한 <古風>59수가 역시 가장 깊은 고민의 양상을 드러낸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古風>59수를 중심으로 하여 ‘자기인식’과 ‘타인의 인정’의 긴장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⁵⁾

2. 本論

2.1. 분석 방법론-주격자아와 목적격자아

<古풍>59수의 ‘자기인식’과 ‘타인의 인정’에 대해 분석하기 전에,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보통 자아는 타인에 의해 인정받기를 원한다.⁶⁾ 그런데 타인의 인정은 타인들이 생각하고 규정하는 像에 의해 좌우된다. 자아가 ‘나를 이런 식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하면 타인이 이 방식에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도 ‘자기 나름의 생각과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아는 타인의 인정을 갈망한다. 그러나 타인들은 자기들이 상상하고 규정한 像에 맞을 때 그 자아를 인정해 주며 이와 다를 때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자아가 아무리 스스로 이런 사람이라고 외쳐도 타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서구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자아의 像을 ‘주격 자아(I)’라

5) <古風>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신하윤, <詠懷詩 傳統속의 李白 古風五十九首 研究>, 《중국어문학지》 5권, 1998. 17쪽 참조.

6) 현대 독일의 철학자이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거두인 악셀 호네프트(Axel Honneth, 1949~)의 ‘인정투쟁’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타인에 의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아울러 ‘인정’에 대한 욕구와 마찬가지로 ‘무시’를 받지 않고자 하는 욕구 또한 있다. 인정에는 현존성, 동등성, 특수성의 측면이 있다.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욕구는 현존성이고, 남들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동등성이며, 자신의 특수한 측면을 무시당하지 않는 것은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 아울러 우월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또한 존재한다. 이렇게 인정에 대한 이론을 펼치고 있는 호네프트는 미드(George Herbert Mead, 1863~1931)의 자아 이론을 자신의 이론의 근거로 내세운다.

고 부르고, 타인이 규정해주는 자아像을 ‘목적적 자아(me)’라고 부른다.⁷⁾ 다른 말로 ‘주체적 자아’와 ‘객체적 자아’로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주격자아와 목적적 자아가 서로 조화될 경우, 즉 내가 생각하는 자아상과 타인이 나에게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상이 조화될 경우 자아는 행복한 자아실현을 성취한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어긋날 경우 심각한 내적 갈등과 모순에 빠진다. 서로 조화된다는 것은 주격자아가 타인들이 규정한 목적적자아와 일치된다는 말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주격자아를 타인들이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타인이 인정을 해주는 매커니즘은 타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像과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타인들의 인정이 없다면 주격자아는 공허하고 自慰적인 신세로 전락한다.⁸⁾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한국인인 ‘나’가 해외에서 체류할 때 외국인들이 ‘당신은 한국인이니 (이미 알려진) 한국인의 특성대로 행동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나를 ‘한국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7) 위 각주 6에서 언급한 미드의 이론에 따른 것이다.

8) 이상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드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주격 자아(주체적 자아)와 목적적 자아(객체적 자아)가 존재한다. 목적적 자아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시각을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아상을 말한다. 타인들이 자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자아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하면서 공통적인 것을 추출해 형성되는 것이 목적적 자아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자아상’이다. 즉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 가치관을 따르는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주격 자아란 목적적 자아에 반하여 형성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서의 자아이다. 주격 자아와 목적적 자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목적적 자아를 주격 자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이를 자아정체성으로 확립하게 된다. 둘째로 목적적 자아에 주격자아가 반발하는 경우에는 내적 갈등에 빠지게 된다. 자신을 특정한 형태로 고착화하려는 목적적 자아, 즉 사회적 요구를 억압으로 받아들이고 저항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반발하는 주격자아를 미래의 대안적 자아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즉, 현재의 목적적 자아(사회적 요구로 형성된 것이다)에는 반발하지만 먼 미래에 도래할 (발전된) 사회를 상상할 경우 주격 자아와 목적적 자아는 화해하고 안정된 자아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사회적 ‘인정’을 뜻한다. 총괄하면 주격자아는 목적적 자아(사회적 요구)와 갈등하면서 비로소 구체화된다. 그러나 이 주격자아는 사회적 ‘인정’이 없다면 억압이나 자기분열에 빠지게 된다. 억압받는 주격자아는 사회적 요구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현존 사회에는 갈등하지만 미래의 자신을 인정해줄 사회를 상상하며 주격 자아와 미래의 목적적 자아와의 화해를 미리 체험할 수 있다. 이상의 서술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 사월의책, 2017. 228-279쪽. 철학아카데미, 《처음읽는 독일현대철학》, 동녘, 2017. 339-369쪽. 악셀호네트 저,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7. 144-182쪽.

대해 생각하는 목적격자아는 ‘한국인’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인임을 떠나서 주체적인 자아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이다. 나는 ‘일반 한국인’의 특성대로 행동해야 하는 인간이 아니다. 만약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특성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예를 들면 김치를 싫어한다든지) 그들이 생각한 목적격자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상하게 볼 것이다. 이것이 주격자아와 목적격자아의 불일치이다. 즉 타인은 타인 자신의 프레임으로 ‘먼저’ 나를 바라보고 규정하는 것이다.⁹⁾

이상과 같은 주격자아와 목적격 자아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李白의 주격자아와 목적격자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¹⁰⁾

2.2. 李白의 주격자아의 형성: 謫仙人과 功成身退

李白의 주격자아는 어린 시절부터 (문학적)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어온 것으로 시작해서 자부심과 천재성을 스스로 북돋우는 방향으로 형성, 발달했다고 본다.¹¹⁾ 李白은 자신의 천재성과 능력을 확신하며, 이러한 李白의 자신감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이미지로 형상화 된다. 젊은 시절¹²⁾에 지어진 다음 시에

9)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의사가 되어 살아가길 바라고, 그러한 A씨의 의사로서의 모습을 그의 바람직한 像으로 규정한다(A씨의 목적격자아). 그러나 A씨는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한다(주격자아). 목적격자아와 주격자아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갈등이 생긴다. 자아(주격자아)를 타인들이 규정하고(목적격자아), 그 규정에 어긋날 때 그러한 주격자아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해결방법은 주격자아(예술가)를 목적격자아(의사)에 맞추는 방법(즉 예술가를 포기하고 의사가 되는 방법: 자기억압), 그리고 타인을 무시하고(아버지를 무시하고) 주격자아를 밀고 나가는 방법 등등이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엄청난 심리적 부담 및 타인과의 갈등이 발생한다. 가장 좋은 것은 목적격자아(의사)와 주격자아(A씨도 의사가 좋음)가 일치하는 것이다.

10) 타인에 의해 형성되고 규정되는 李白의 자아에 대해서 필자는 줄고에서 간단하게 논의한 바 있다. 줄고, <李白의 長安宮廷時期 社會的 關係網 구축 양상 小考>, 《중국어문학논집》 86집, 2014. 319-341쪽 참조.

11) <上安州拜長史書>: “5세 때 육십갑자를 외웠다...10세 때 제자백가를 읽고 黃帝 이래의 일을 알았다(五歲通六甲...十歲觀百家軒輊以來頗得聞矣)”.

서는 ‘큰 물고기’로 형상화 되었다가, 곧 그 물고기는 거대한 鵬새로 변화한다. 아래 작품을 읽어보자. <古風> 五十九首 其三十三이다.

北溟有巨魚 북쪽 바다 그곳에는 거대한 물고기가 있네
 身長數千里 물고기 몸 길이가 수천 리가 되다네
 仰噴三山雪 위로는 삼산 눈발 같은 물줄기를 분출하고
 橫吞百川水 옆으로는 백가지 하천 물을 삼켜버릴 듯
 憑陵隨海運 바닷물 운행 따라 마음껏 횡행하다가
 燁赫因風起 바람 타고 기세 등등 솟구쳐 올라가네
 吾觀摩天飛 내가 본다네, 하늘까지 날아올라
 九萬方未已 구만리를 올라가도 멈추지 않음을.

이 시에서는 자신이 북쪽 바다에 사는 큰 고기이며, 그 고기는 거대한 몸집-거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고기가 현재 바다 속에 잠겨 있으니 아직은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상태다. 즉, 자신의 재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한 상태다. 그 고기의 재능은 고개를 쳐들어 삼산(蓬萊, 方丈, 瀛州)의 눈발을 날려버릴 정도이고, 수백의 강줄기를 삼켜버릴 정도이다. 파도를 타고 물결을 따라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가 보였을 때 바람을 타고 솟구쳐 구만리 상공의 하늘로 치솟을 것이다. 하지만 물고기가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 이 물고기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봉새로 변신한다.¹³⁾ 봉새는 바람을 타고 올라갈 것이다. 바람은 봉새가 나는 것을 도와주는 존재다. 바람의 존재는 이 시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바람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자신의 천재성과 재능을 혼자 가지고 있어봤자 물속의 물고기에 불과하고, 봉새가 되었을 때 날아오르게 해줄 바람이 필요하다.¹⁴⁾ 바람은 출세하거나 공을 세우는데 관

12) 開元13년(725), 25세 때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13) 《莊子·逍遙遊》: “북쪽 끝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鯤이라 한다. 곤의 길이는 몇천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변하여 새가 되면 그 이름을 鵬이라 한다. 봉의 등도 길이가 몇천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봉이 펼쳐 날아오르면 그 날개에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았다. 이 새는 큰 바람이 바다 위로 불면 비로소 남쪽 바다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 남쪽 바다란 바로 天池이다(北冥有魚, 其名爲鯤. 鯤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

건이 되는 결정적인 도움을 일컫는다. 이 기회는 당시의 세태로 보았을 때 보통 고관대작의 '인정'으로 주어진다(科擧 시험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이다). 즉 '타인의 인정'이 관건이 된다.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그저 자위에 불과할 뿐, 그것이 활성화 되려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인정이 필수적이다. 요컨대, 스스로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물 속에 잠긴 물고기의 상태일 뿐, 그것을 활성화 시키는 '바람'이 필요하다. '바람'은 바로 '타인에 의한 인정'이다. 그 인정에 의하여 비로소 봉새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요컨대 자신이 공을 세워 이름을 날릴 기회를 잡고 그러한 바람을 타기만 한다면 숨겨졌던 재능을 맘껏 펼칠 것이라는 자신감이 시의 전편에서 솟구치고 있다. 다음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자.

<古風> 五十九首 其十

齊有僮生 제나라에 뜻과 기개가 넘치는 선비들 있어
魯連特高妙 그 중에는 魯仲連이 특히 드높고 뛰어났네
明月出海底 밝은 달 해저에서 나와서
一朝開光耀 한번 비추니 휘황한 빛 열었지
却秦振英聲 진나라 물리쳐 아름다운 명성 떨치고
後世仰末照 후세사람들 그 남겨진 빛 우러러 보네
意輕千金贈 뜻은 천금을 가볍게 여기고
顧向平原笑 평원군 돌아보며 씩 웃었네
吾亦澹蕩人 나 또한 세속에 얽매이는 사람 아니니
拂衣可同調 옷 털고 뜻을 같이할 수 있으리

李白은 앞의 시에서 자신이 바다 속에 잠겨있는 물고기이며 이 물고기가 봉새가 되어 바람을 만나 날아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자신의 능력 및 지향점, 그리고 自我像을 형상화한 것이다. 역사적 인물로 구체화하면 위 시에서 보이는 魯仲連이 자신의 자아상과 비슷할 것이다. 제 3,4구에서 魯仲連의 모습

14) 《莊子·逍遙遊》: "열자는 바람을 타고 다니는데 아주 가벼웠다. 15일이 지난 후 돌아왔다. 바람이 잘 불기를 바라는 것에 연연하지는 않았다. 그가 비록 걸어 다니는 것은 면했지만 아직 의지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바람에 의지한다)(夫列子御風而行, 泠然善也, 旬有五日而後反. 彼於致福者, 未數數然也. 此雖免乎行, 猶有所待者也)."

을 明月에 비유하고 있다. 이 明月은 明月珠를 가리키는데,¹⁵⁾ 이 구슬은 뛰어난 재능을 상징한다. 이 재능은 처음부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 잠겨져 있다고 했는데, 이는 마치 李白이 물고기의 모습으로 바다 속에 잠겨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명월주는 밝은 빛을 드러낸다. 마치 갑자기 바람을 타고 상승하는 봉새와도 같이, 바다 속에 묻혀 있지 않고 갑자기 그 재능을 드러낸다. 이는 魯仲連이 平原君을 만나, 재능을 발휘하여 평원군의 인정을 받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¹⁶⁾ 魯仲連을 빛나게 한 ‘바람’은 평원군이다. 일단 자신을 인정해준 평원군에게 魯仲連은 더 이상의 미련 없이 천금의 보상도 마다하고 멀리 떠난다. 중요한 건 일단 평원군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李白도 역시 魯仲連처럼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며 멋지게 사양하고 떠나버리고 싶다(功成身退). 다른 작품에서도

所冀冀頭滅 바라는 바 반란군을 무찔러
功成追魯連 공을 이루고 魯仲連을 따르리¹⁷⁾

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바 있다. 세상에서 공로를 세우는 이러한 자아는 李白의 ‘주격자아’로 자리매김한다.

이상의 두 편의 작품에서 李白은 자신의 능력과 포부를 이야기하고 있다. 李白의 주격자아는 자신감과 능력과 천재성을 갖춘 자아이다. 이 주격자아는 봉새처럼 구만리를 올라가서 魯仲連처럼 큰 공을 세우는 자아이다.

15) 이영주, 임도현, 신하윤 역 《이태백시집》 1권. 학고방, 2015. 38쪽.

16) 秦나라가 趙나라를 포위했을 때 魯仲連은 趙나라의 평원군을 만나 그를 위해 변론을 하여 秦의 군대를 퇴각시켰다. 이후 魯仲連은 벼슬과 천금을 마다하고 떠나버려 다시는 평원군을 만나지 않았다. 《史記, 魯仲連鄒陽列傳》 참조.

17) <수군의 연회에서 막부의 여러 시어에게 줌(在水軍宴贈幕府諸侍御)>. 李白이 安史의 반군에 맞서는 永王 李璘의 군대에 가담했을 때 지은 작품이다(至德 2년, 757). 군대에서 공을 세우고자 하는 강렬한 바람이 드러난 작품이다. 하지만 永王 李璘의 군대는 肅宗의 군대에게 패배하여 永王 李璘은 피살되고 李白은 죄를 얻게 되어, 공을 세우겠다는 꿈은 물거품이 된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타인의 인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거대한 물고기는 봉새로 변한 뒤 타인의 인정(즉, 바람(風))에 의해 날아오를 수 있다. 魯仲連의 업적도 평원군의 인정을 통해 빛을 발한 바 있다. 타인의 인정이 없이는 거대한 물고기는 봉새로 거듭나 날아오를 수 없고, 魯仲連과 같이 공성신되할 수도 없다. 타인이 인정하지 않는 주격 자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타인 중에서 李白을 인정해준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하고 결정적인 것은 賀知章(659~744)이다. 李白의 비범함에 감탄한 賀知章은 하늘에서 ‘편적 온 仙人’이라고 李白을 규정한다.¹⁸⁾ 이는 賀知章이 규정한 李白의 목적격 자아(즉, 타인이 보는 李白의 像)가 되며, 李白은 일단 흡족해 한다. 타인이 규정해주고 인정해준 자아가 ‘謫仙人’인 것이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타인의 관점(목적격 자아)’을 받아들인 李白의 주격자아는 결코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 ‘하늘에서 편적 온 仙人’이라는 표현은 물론 賀知章이 李白의 풍모에 감탄하여 발언한 것이겠지만, 그 함의는 李白이 보통사람과는 달리 매우 비범하나, 어쨌든 ‘仙人’이므로 ‘현실에서는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적 공로를 세우기도 부적합할 것’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李白이 원했던 주격자아는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魯仲連과 같이 현실에서 공로를 세우는 주격자아이다. ‘謫仙人’에서만 멈추지 않고 현세에서, 人間世에서 실제로 나라를 위한 공로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李白의 주격 자아는 ‘謫仙人’이라는 측면보다는 현세에서의 실제 공로를 세우는 현실적 ‘功臣’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賀知章은 李白을 인정하여 謫仙人이라고 불러주었다. 다른 말로 하면 賀知章은 李白을 仙人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李白의 주격자아가 어긋나 보인다면 賀知章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李白의 주격자아를 인정해 줄 수가 없을 것이

18) 唐 孟棻, 《本事詩·高逸》: “李白이 촉에서 서울로 와서 숙소에서 머물고 있었다. 하지장 이 그 명성을 듣고 처음으로 李白을 방문했다. 그 기이한 자태에 또 그의 문장을 칭했다. <蜀道難>을 보여주자 다 읽지도 않고 몇 차례 경탄하더니 ‘적선’이라고 불러주었다(李白初自蜀至京師, 舍於逆旅. 賀監知章聞其名, 首訪之. 既奇其姿, 復請所爲文. 出<蜀道難>以示之. 讀未竟, 稱嘆者數四, 号爲謫仙).”

다. 그렇다면 현실적 功臣이라는 또 다른 주격자아의 측면을 다른 타인들은 인정해주는가? 아래에서 <古風> 五十九首 其五十六을 읽으며 고찰해보자.

2.3. 功臣으로서의 주격자아와 타인들의 인정 여부

<古風> 五十九首 其五十六

越客採明珠 월나라 객이 밝은 구슬 캐다가
 提攜出南隅 그걸 들고서 남쪽 모퉁이에서 왔다
 清輝照海月 맑은 빛, 마치 바다 위 달빛 비추는 듯
 美價傾皇都 높은 값어치는 도성 사람들 관심 끌었네
 獻君君按劍 임금께 바쳤더니 되려 의심하여 검을 어루만지니¹⁹⁾
 懷寶空長吁 보물 안고 공연히 장탄식 나오네
 魚目復相哂 물고기 눈알들도 이를 비웃으니
 寸心增煩紆 마음은 더욱 근심스럽고 답답해지네

이 시에서는 구슬을 가지고 나타난 월나라 객이 등장한다. 그 구슬의 광채가 대단하여 도성 사람들이 온통 관심을 가진다. 구슬은 李白 자신을 상징하고, 광채는 자신의 재능을 상징한다. 광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재능에 대한 타인들의 인정을 상징한다. 제 3구에서 바다 위 달빛이라고 한 것에 주목해보자.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다 속의 큰 물고기를 연상시킨다. 그것이 바다 표면 위로 현현한 것이 달빛이다. 이러한 휘황한 재능에 도성의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한다. 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재능을 인정한 것이다. ‘바다 위에 드러나는 휘황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타인들이 인식하는 李白의 상이다. 李白은 이에 일단 흡족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신을 인정해 주어야 할 인물은 인사권을 가진 고관들과 임금이다. 그러나 제 5구에서 정작 자신을 인정해

19) 《史記·魯仲連鄒陽列傳》: “명월주나 야광구슬을 도로에서 남에게 몰래 던지면 사람은 검을 만지며 흘려보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이 눈앞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明月之珠, 夜光之璧, 以闇投人於道路, 人無不按劍相眄者. 何則? 無因而至前也)”.

주어야 할 임금은 인정을 해 주기는커녕 검을 들고 의심을 하고 있다. 게다가 7구에서는 물고기 눈알들로 상징되는 간신들이 역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비웃고 있다.

이 시에서는 타인이 두 부류로 나뉜다. 자신을 진정으로 인정해 주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타인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타인들이다. 후자의 타인들에는 임금과 간신들이 있다. 임금은 자신을 몰라보고, 간신들은 자신을 비웃는다.

결론적으로 이 시에서의 주격 자아는 '謫仙人'이 아니라 실제로 벼슬을 해서 공을 세우는 '功臣' 자아인데, 그러한 자아를 정작 '중요한 타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 그러한 공을 세우는 일을 애초에 실현할 수가 없다. 이들이 보는 李白에 대한 像은, '천재적인 재능(주로 문학·예술 등의 재능으로서, 정치적이거나 실무적인 능력이 아니다)은 뛰어날지 모르나 실제 공로를 세울 수는 없는 인물'이다. 이것이 타인이 규정한 李白의 상(목적격자아)이다. 즉 賀知章이 파악한 바 謫仙人에만 어울리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공로를 세우려고 하니 황제는 의심하고 타인들은 비웃는다. 타인들은 자기들이 규정한 李白의 상(목적격자아)에 李白의 주격자아가 맞지 않으니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다.

다음 작품을 읽어보자.

<古風> 五十九首 其五十七

羽族稟萬化 깃털달린 새들은 수만 조화를 품부받아
 小大各有依 작은 것들 큰 것들 각기 의지하는 바 있네
 周周亦何辜 '주주'새는 또 무슨 허물이 있어서
 六翮掩不揮 여섯 깃털 숨기고 날개짓을 못하는가?
 願銜衆禽翼 여러 못 새들의 날개를 머금고
 一向黃河飛 한번 황하로 날아가고 싶어도
 飛者莫我顧 날아가는 새들 나를 돌아봐주지 않으니
 嘆息將安歸 아하!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www.kci.go.kr

《韓非子·說林下》에는 '翩翩'라는 새가 있는데 머리가 무겁고 꼬리가 굽어

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고꾸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새가 날개를 입에 물고 마시게 도와준다고 한다는 고사가 있다.²⁰⁾ 이 시는 이 새를 소재로 하여 서술하고 있다.

첫 두 구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새는 각기 품부 받은 바가 있어 각기 재주가 있고, 또 역시 각기 의지하는 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며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李白 역시 품부 받은 천재적인 재주가 있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즉, 인정은 남이 해주는 것이므로 李白도 윗 시에서 남에게 ‘의존(依)한다’고 했다. 그런데 주주새는 허물을 타고나서 제대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덧붙여 날갯짓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주주새는 물론 李白 자신을 상징한다. 무언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들과 같지 않은 천재성이 도리어 세상살이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속된 정치적, 실무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5구에서 여러 새들의 깃털을 물고 황하로 가고 싶다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공을 세우고자 하는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날아가는 새들은 자신을 돌아봐주지 않는다. 즉 인정하지 않는다. ‘功臣으로서의 목적격 자아’는 형성해 주지 않는 것이다. 나의 주격자아는 功臣으로 받들음하고 싶은데, 즉 황하로 날아가고 싶은데 이러한 자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다. 타인들은 李白을 ‘주주새 정도의 무언가 불완전한 새,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새’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仙人이라면 몰라도 세상을 구제하는 功臣으로서의 상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功臣이 되리라는 李白 스스로의 주격자아를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결국 남는 것은 마지막 구처럼 탄식하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자아분열일 뿐이다. 다음 작품을 읽어보자.

20) 《韓非子·說林下》: “새 중에 도도라는 것이 있다. 머리가 무겁고 꼬리가 굽었다. 강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진다. 이에 (다른 새가) 그 깃털을 물고 물을 마시게 한다. 사람이 잘 마시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깃털을 찾지 않을 수 없다(물을 마시게 도와주는 사람을 찾지 않을 수 없다)(鳥有翮翮者, 重首而屈尾, 將欲飲於河, 則必顛. 乃銜其羽而飲之. 人之所有飲不足者, 不可不索其羽也).” 翮翮와 周周는 같은 새이다. 阮籍, <詠懷詩> 82首 其8: “주주는 다른 새가 물 마시도록 깃털을 물어주네(周周尙銜羽)” 참조.

<古風> 五十九首 其五十九

惻惻泣路岐 슬프게 양주가 갈림길에서 울고
 哀哀悲素絲 흰 실을 보고 목적이 애달파한 것은
 路岐有南北 갈림길에는 남쪽과 북쪽이 있고
 素絲易變移 흰 실은 물들기 쉽기 때문이지
 萬事固如此 만사는 모두 이러하니
 人生無定期 인생은 정해진 기약이 없네
 田竇相傾奪 전분과 두영이 싸울 때
 賓客互盈虧 빈객들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했듯이²¹⁾
 世途多翻覆 세상길이 자주 엇치락뒤치락하니
 交道方嶮巖 교제의 길이란 정말 험하다
 斗酒強然諾 한 말 술에 억지로 허락하지만
 寸心終自疑 속 마음으로는 마침내 의심하네
 張陳竟火滅 장이와 진여는 그 우정이 불타오르다 꺼졌고²²⁾
 蕭朱亦星離 소육과 주박도 별이 흩어져 있듯 멀어졌네²³⁾
 衆鳥集榮柯 못 새들이 무성한 가지로 모여드는데
 窮魚守枯池 궁한 물고기는 마른 연못을 지키고 있네
 嗟嗟失歡客 아! 즐거움을 잃어버린 나그네여
 勤問何所規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이 시의 마지막 부분 15-16구에서 못 새들은 영화로운 나뭇가지에 모여들고 있고 궁한 물고기는 마른 연못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앞에서 언급한 ‘거대한 北溟²⁴⁾은 ‘말라버린 연못’으로 쪼그라져 있고, ‘巨魚’는 ‘窮魚’로 초라하게 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 궁어는 말라버린 연못을 지키고 있다. 하늘로 솟구치겠

21) 漢 武帝 당시 武安侯 田蚡이 재상이 되어 권세를 누리고 이전의 승상이었던 魏其侯 竇嬰이 권세가 약해지자 위기후의 빈객들이 무안후에게로 옮겨갔다. 결국 무안후의 험담으로 위기후는 빈객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다. 《史記·魏其武安侯列傳》 참조.
 22) 張耳와 陳餘는 서로 친구였는데 전쟁 중 장이가 곤경에 빠졌을 때 진여가 도와주지 않아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項羽가 장이를 왕에 봉하고 진여를 등급이 보다 낮은侯에 봉하자 진여가 분노했다. 이후 장이는 漢나라에 귀순하여 韓信과 함께 진여를 泚水에서 추격하여 죽였다. 《史記·張耳陳餘列傳》 참조.
 23) 西漢 시기 인물인 蕭育과 朱博은 우정이 깊어 서로 추천하여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다. “후에 둘 사이가 벌어지면서 끝이 좋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교유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育與博後有隙, 不能終, 故世以交爲難). 《漢書·蕭望之傳》”.
 24) <古風> 제33수: “北溟有巨魚”.

다는 역동성은 사라지고 연못 안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15구에서 등장하는 ‘못새’들로 상징되는 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타인들은 무리로서, 영화로운 가지에 모여들고 있다. 외로운 천재인 자신과 다르게 타인들은 외롭지 않고 무리를 짓는다. 이들은 땅에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높고 무성한 가지에 모인다. 이는 말라버린 연못과 대비를 이룬다. 나뭇가지에 모여 있으니 아래의 연못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다. 타인들은 서로 연합하여 궁어 따위는 무리에 합류시켜 주지 않는다. 가지에 모인 못 새들은 권세를 좇는 소인배이며 외로운 연못을 지키는 궁어는 절개를 지키는 군자로 읽을 수 있지만, 李白은 이러한 군자의 처지를 도를 지킨다며 자랑스러워하거나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즐거움을 잃어버린 객’이 등장한다. 그 객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묻는다. 여기서 즐거움을 잃은 객은 李白 자신이며, 무엇을 찾느냐고 묻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다는 자문자답이다. 인생에서 찾고 추구할 가치가 상실된 것이다. 궁어의 처지로 전략하여 ‘연못만을 지키고 있는, 역동성을 상실하여 구만리 상공으로 솟구칠 희망이 없어져 버린 처지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총괄하면 이 시에서도 못 새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李白의 주격자아는 궁어로 전략하여 연못을 지킨다. 못 새들은 李白을 功臣으로 보아주지 않는다(功臣이라는 목적격 자아를 세워주지 않는다). 이에 李白의 功臣이라는 주격자아는 못 새들의 관점과는 상이하므로, 즉 못 새들이 功臣이라는 주격자아를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李白은 어쩔 수 없이 궁어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李白은 인정을 해주는 주체인 타인들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古風> 五十九首 其五十

宋國梧臺東 송나라 오대의 동쪽에서

野人得燕石 야인 한사람이 연나라 돌을 줌

誇作天下珍 천하의 보물이라고 자랑스러워하며

却哂趙王璧 조나라 왕의 옥을 비웃었다네

趙璧無緇磷 조나라 옥은 티가 하나도 없고
 燕石非貞眞 연나라 돌은 진짜 진품이 아니었네
 流俗多錯誤 세상의 속인들은 착오를 잘 일으키니
 豈知玉與珉 옥과 옥돌을 어찌 알겠는가.

이 시에서 李白은 연나라 돌²⁵⁾로 상징되는 보통 사람과, 조나라 옥으로 상징되는 李白 자신을 대비시키고 있다. 조나라 옥은 진나라에서 15개 성과 바꾸자고 할 정도로 귀중한 옥이다.²⁶⁾

세상 타인들은 자신을 功臣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李白은 이 타인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功臣으로서의 목적격 자아를 세워주지 않는 타인들에 대하여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무능한 타인들이라고 비판한다. 타인들의 인정이나 타인들이 세워주는 목적격 자아에 연연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틀렸다고 한다. 타인들이 세운 목적격자아는 이 시에서는 ‘연나라 돌’이다. ‘연나라 돌’은 그저 그런 수준의 인물을 뜻할 것이다. 타인은 李白을 ‘연나라 돌’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연나라 돌’ 수준으로 행동하길 원한다. ‘연나라 돌’ 수준의 인간이 ‘조나라 옥’처럼 행동한다면 인정하지 않고 배척할 것이다.

연나라 돌은 진품이 아니다. 즉, 천재가 아니다. 나를 연나라 돌에 맞출 수는 없다. 옥석을 가릴 줄조차 모르는 타인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헛된 일이다. 결론적으로 이 시에서 李白은 자신을 인정해줄 타인의 인정능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즉, 李白의 주격 자아(功臣)는 목적격 자아(타인이 바라보는 像)에 저항한다.

다음 작품에서는 그나마 자신의 功臣으로서의 자아를 인정해주는 인물이 등장한다.

25) 연나라 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사가 있다. 송나라의 어리석은 사람이 연 땅에서 돌을 주워서 귀중하다고 여기고 숨겨놓았다. 길 가던 나그네가 청해서 보고자 하니 비단을 풀어서 보여주었다. 나그네가 이것은 가치가 없으니 기와조각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러나 송나라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더욱 숨겨놓았다. 郁賢皓, 《李白詩全集》, 三民書局, 2011. 63쪽 참조.

26) 《史記·廉頗藺相如列傳》에 “조나라 혜문왕 때 초나라의 화씨벽을 얻었다. 진나라 소왕이 이를 듣고 사신을 조나라 왕에게 보내어 진나라의 15개 성과 그 화씨벽을 바꾸자고 했다(趙惠文王時, 得楚和氏璧. 秦昭王聞之, 使人遺趙王書, 願以十五城請易璧).”라고 하였다.

<古風> 五十九首 其四十

鳳飢不啄粟 봉황은 주려도 조를 찌지 않으니
 所食唯琅玕 먹는 것은 오직 낭간뿐이로다
 焉能與羣鷄 어찌 능히 여러 닭들과
 刺鬣爭一飡 한 끼 밥을 바빠 다투라
 朝鳴崑丘樹 아침엔 곤륜산의 나무에서 울고
 夕飲砥柱湍 저녁엔 지주산의 여울물을 마시네
 歸飛海路遠 머나먼 바닷길을 날아 돌아가서
 獨宿天霜寒 차가운 서리 맞으며 홀로 잔다네
 幸遇王子晉 다행히도 '왕자진'을 만나게 되어서
 結交青雲端 푸른 구름 저 끝에서 서로 사귀게 되었네
 懷恩未得報 은혜를 품고서도 아직 갚지 못했네
 感別空長嘆 이별에 느끼어 공연히 긴 탄식하네

이 시는 翰林學士를 그만두고 장안을 떠날 때 자신을 알아보고 인정해준 누군가에게 써준 시이다. 이 시에서 李白은 뛰어난 재주를 지닌 봉황으로 묘사된다. 봉황은 못 새들과 한 끼 밥을 다투지 않는다. 못 닭들은 李白을 평가하고 규정하는 타인들이다. 그들은 李白의 목적격자아를 자신들과 비슷한, 저급한 수준인 '여러 닭들의 수준'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를 것을 기대하는 타인들이다. 결국에는 자신들과 알맞지 않은 李白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李白은 이들이 규정해준 목적격자아(여러 닭들)와 자신의 수준높은 주격자아(봉황)와는 맞지 않음을 느낀다. 이런 느낌이 한 끼 밥을 다투지 않는다고 표현되었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봉황은 결국 차가운 서리를 맞으며 홀로 잘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타인들이 인정해주지 않는(功臣으로서의) 주격자아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 서리를 맞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4구절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인정해 주는 타인이 나타나는데 이 타인은 仙人 왕자진으로 상징된다. 왕자진은 생황으로 봉황의 울음소리를 잘 내던 仙人²⁷⁾이다. 다시 말하면 李白을 봉황으로 인정해주는 타인이다. 그러나 이러

27) 《列仙傳·王子喬》: “왕자교는 주나라 영왕의 태자 진이다. 생황을 잘 붙어서 봉황의 울음소리를 낼 수 있었다(王子喬者周靈王太子晉也, 好吹笙作鳳凰鳴).”

한 타인의 인정은 일회성에 불과하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 이 타인과 이별을 하게 된다. 이 타인은 문맥으로 보았을 때 李白의 功臣으로서의 주격자아를 인정해 주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 인물은 仙人이라는 형상으로 표현됨으로서 '功臣 + 仙人'의 복합적 이미지를 형성해 내게 된다. 결국 李白은 功臣으로서의 주격자아를 탈피하여 仙人으로서의 주격자아로 회귀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래 시를 읽어보자.

<古風> 五十九首 其四十九
美人出南國 남국에서 온 아름다운 여인
灼灼芙蓉姿 부용처럼 자태가 빛나도다
皓齒終不發 하얀 이를 결국에는 드러내지 못하고
芳心空自持 향기로운 마음 헛되이 스스로 지켰도다
由來紫宮女 자고로 황궁의 여인들은
共妒青蛾眉 푸른 눈썹 미녀를 모두들 질투한다네
歸去瀟湘沚 상강의 모래섬으로 돌아가리라
沉吟何足悲 낮게 읊조리도다. 어찌 또 슬퍼하리요?

이 시의 첫 4구는 남국의 아름다운 여인을 형상화하는데, 이 남국여인이 상징하는 인물은 李白 자신으로 볼 수 있다. 3,4 구에서 '하얀 이'는 천재성이나 자신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이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드러낼 기회가 없었다는 말이다. 결국 그 '향기로운 마음(역시 천재성, 능력 등을 상징한다)'을 공허하게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천재적 재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니 나 혼자 간직할 수밖에 없었다.

5-6구에서 등장하는 타인들은 황궁의 다른 여인들인데, 이들은 남국여인을 인정해주시는커녕 질투하고 공격한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격을 피해야 할 형국이다. 이 여인들이 남국여인(李白)에게 원하던 像, 즉 목적격자아는 자기들과 동등한 수준의 자아였을 것이다. 그러나 남국여인의 주격자아는 이러한 동등한 수준이 아니라, 부용과 같은 자태를 지닌 뛰어난 자아이다. 주격 자아는 타인들이 세워주는 목적격 자아에 걸맞지 않으니

이에 타인들은 남국여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넘어 질투하고 배척한다. 여기서 남국여인, 즉 李白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李白은 이 상황을 회피한다. 회피하여 돌아가는 곳은 상강의 모래섬이다.

처음에 남국여인이 존재하고 있던 장소는 '황궁'이다. 이는 세상으로 나와 황제와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려는 功臣으로서의 주격자아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 질투로 인해 좌절하여 물러나서 갈 공간은 상강의 모래섬이다.²⁸⁾ 이곳은 謫仙人으로서의 주격자아와 부합한다. 결국 李白의 주격자아는 오로지 이러한 謫仙人이 알맞은 것이 아닐까. 아래에서 謫仙人으로서의 주격자아로 회귀하는 李白의 모습을 살펴보자.

2.4. 謫仙人으로서의 주격자아로 회귀

<古風> 五十九首 其四

鳳飛九千仞 봉황이 날아올라 구천 길 높은 하늘로 치솟으니
 五章備綵珍 다섯 가지 무늬 진기한 채색 모두 갖추었네
 銜書且虛歸 편지를 물고 들어갔다 허되이 돌아오니
 空入周與秦 주나라·진나라로 들어간 것 허되었네
 橫絕歷四海 천하 사해를 횡단하여 주유천하를 해도
 所居未得鄰 머무는 곳마다 이웃을 얻지 못했도다
 吾營紫河車 나는 자하거를 만들어 타고
 千載落風塵 천년토록 영원히 풍진을 떨어버리려네
 藥物秘海嶽 단약 만들 약물들이 바다와 산에 숨어있으니
 採鉛靑溪濱 청계의 물가에서 열심히 납을 캐다네
 時登大樓山 이따금 대루산에 올라가서
 舉首望仙眞 고개를 들어 仙人 계시던 곳 바라보니
 羽駕滅去影 깃털달린 수레의 그림자 자취는 사라지고
 飈車絕回輪 회오리 수레의 돌아오는 바퀴자국 끊겼네
 尙恐丹液遲 여전히 두렵네 단약 만드는 것이 지체되어
 志願不及申 뜻과 소원을 펼치지 못할까봐.

28) 이 시가 지어진 것은 장안을 떠날 즈음으로 파악된다(天寶3년, 744).

徒霜鏡中髮 단지 거울 속 비추는 머리카락에 서리 내리
 羞彼鶴上人 저 학을 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는 않을까
 桃李何處開 복숭아꽃 자두꽃 어디에 피었느냐
 此花非我春 이 꽃은 나의 봄이 아니로다
 惟應清都境 오직 仙人들의 마을에서
 長與韓衆親 '한중'과 영원히 친하리라

이 작품에서 李白은 봉황으로 상징되어 구천 길 하늘을 날아오르려 하고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날아오른 봉황은 진기한 채색을 갖춘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천재성과 능력을 갖춘 자신의 주격자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제 3구는 天命이 장차 文王에게 오리라는 하늘의 계시를 적은 중요한 서신을 봉황이 물고 文王의 도읍에 이르렀다는 고사에서 인용한 것으로,²⁹⁾ 천명을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봉황처럼 자신도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장안에 입성하였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는 천명을 세우는 큰 공로를 이루는 功臣으로서의 자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功臣이라는 주격자아를 갖추고 주나라, 진나라(즉 長安)로 당당히 들어갔으나, 결국 모두 부질없었다고 한 것은 장안에서 翰林學士를 지낸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말이다. 결국 이러한 화려한 자신의 자태를, 천명을 지닌 자신의 봉황같은 훌륭함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말이다.

장안으로 들어간 것, 즉 주나라 진나라로 들어간 것은 功臣이라는 주격자아를 펼칠 주요 무대로 진입한 것이다. 즉 '세속'의 결정판이 되는 무대 위로 오른 것이다. 그 곳에서 그러한 功臣으로서의 주격자아를 인정받지 못하고 철저히 무시당한 것이다.

인정받지 못하는 李白은 결국 주유천하를 하게 되는데, 사해 어느 곳에서도

29) 《宋書·符瑞志》: “봉황이 편지를 물고 문왕의 도읍으로 날아왔다.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써여져 있었다. ‘은나라 임금이 무도하여 백성을 학대하고 천하를 어지럽혀서 천명이 이미 옮겨갔으니 은나라의 국운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신령이 멀어지고 백신이 떠나가니 5개의 별이 房宿에 모이도다. 장차 이치를 밝혀 천하 사해에 보여주려 함이라’(鳳凰銜書, 遊文王之都. 書又曰殷帝無道, 虐亂天下, 皇命已移不得復久. 靈祇遠離, 百神吹去, 五星聚房, 昭理四海)’.”

功臣으로서의 주격 자아를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타인들이 설정한 목적격 자아는 아무래도 謫仙人으로서의 李白의 像이기 때문이다. 李白은 결국 제7구 부터 仙人의 세계로 나아간다. 8구에서 풍진을 떨어버린다고 한 것은 功臣으로서의 주격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李白은 자신의 주격자아를 仙人으로 규정하고 열심히 이를 추구한다. 자신의 주격자아를 인정해줄 타인은 이 시에서는 학을 탄 사람이다. 그는 李白의 목적격 자아를 '仙人으로 규정해 주는' 賀知章의 화신이다. 그러한 목적격 자아에 부합하기 위해 李白은 단약의 재료인 납을 열심히 캐어 장생불사를 추구한다. 자신의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릴까 걱정하며 학을 탄 사람에게 부끄러울까 걱정하는 모습은 목적격 자아에 자신의 주격자아가 부합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功臣으로서의 주격자아를 버리고 仙人으로서의 주격자아를 추구하는데 만일 仙人으로서의 주격자아조차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李白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 李白은 장안이나 진나라나 주나라가 아닌 仙人들의 마을 속으로 진입하여, 자신을 인정해주는 '한중'³⁰⁾같은 仙人을 찾아 나선다. 謫仙人이라는 말에 걸맞게, 평적 당해 내려온 땅인 장안, 진나라, 주나라, 그리고 사해를 떠나서 원래의 장소인 仙人의 세계로 올라가, 자신의 목적격 자아를 규정해 준 또 다른 賀知章을 찾아 나선다. 다음 작품을 읽어보자.

<古風> 五十九首 其四十一

朝弄紫泥海 아침에는 자니해에서 노닐다가
夕披丹霞裳 저녁에는 붉은 노을 치마를 걸친다
揮手折若木 손을 휘둘러서 약목을 꺾어서는
拂此西日光 이쪽 서쪽 태양을 쳤도다
雲臥遊八極 구름위에 누워서 세상 끝까지 노닐며

30) 《楚辭·遠遊》에 “한중이 도를 터득한 것을 부러워하노라(羨韓衆之得一)”, 王逸의 注에 “衆은 終으로도 쓴다(衆一作終).”고 했다. 洪興祖의 《楚辭補注》에 《列仙傳》을 인용하여 “제나라 사람 한중이 왕을 위해 약을 썼는데, 왕이 먹으려 하지 않자 스스로 먹더니 마침내 신선이 되었다(齊人韓終, 爲王採藥, 王不肯服, 終自服之, 遂得仙也)”라고 했다. 郁賢皓, 《李白詩全集》, 三民書局, 2011. 9쪽 참조.

玉顏已千霜 옥 같은 얼굴 이미 천년 서리 보냈네
 飄飄入無倪 표표히 끝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稽首祈上皇 머리를 조아리며 상제님께 기원했네
 呼我遊太素 나를 부르셔서 태소에서 노닐게 하시고
 玉杯賜瓊漿 옥배에 仙人의 음료인 경장을 하사하시네
 一滄歷萬歲 한 번 마시면 만년을 살게 되리니
 何用還故鄉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하리오
 永隨長風去 장풍 따라 영원히 떠나가리라
 天外恣飄揚 하늘 밖에서 내 멋대로 노닐 것이라!

이 시에서는 제1구에서 6구까지 환상적인 仙人세계를 묘사하며 李白은 그곳에서 자신의 仙人으로서의 자신에 만족해한다. 이 시에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인물은 상제이다. 상제는 李白을 뛰어난 仙人으로 '인정'하여 경장을 내려준다. 이에 李白은 이를 마시고 만년을 살게 된다. 상제는 옥배에 경장을 담아 수여해 줄 정도로 李白을 인정한다. 상제가 바라보는 李白, 즉 李白의 목적격 자아는 훌륭한 仙人이다. 仙人으로서의 목적격자아에 李白의 주격자아가 부합되게 된다. 결국 李白은 功臣으로서의 주격자아를 포기하고 仙人으로서의 주격자아에 만족하게 된다. 이는, 功臣으로서의 주격자아를 세상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仙人으로서의 주격자아를 상제가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자아실현은 철저히 타인의 손(즉 타인의 인정)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功臣에서 仙人으로 다시 찾아가려 하는 것은 결국 賀知章의 애초의 발언대로, 賀知章이 세워준 목적격자아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이다. 仙人으로서의 주격자아마저 인정받지 못한다면 李白은 功臣도 아니고 仙人도 아닌 공허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이다. 요컨대, '타인의 인정이 만들어내는 목적격 자아가 자신의 주격 자아를 규정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李白은 결코 이러한 仙人으로서의 자아에 만족하지 못하고 만년에 가서는 功臣으로서의 자아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사실에 낙담하고 만다.

仙人으로서의 자아를 인정해 주는 것은 각종 神仙들, 王子晉, 上帝 등 상상 속 가공의 존재들일 뿐이다. 李白은 현실이 아닌 관념과 환상의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뿐이다.

다음 작품을 읽어보자. 李白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알려진³¹⁾ <臨路歌>이다.

<臨路歌>

大鵬飛兮振八裔	대봉이 날아오르매 팔방을 떨치다가
中天摧兮力不濟	하늘 중간에서 꺾이어 건너갈 힘이 없네
餘風激兮萬世	남은 바람은 만세에 격렬하리라
遊扶桑兮掛石袂	부상에서 노닐다가 왼 소매가 걸렸네
後人得之傳此	후인이 이를 얻어 전한다 해도
仲尼亡兮誰爲出涕?	공자가 없는데 누가 눈물 흘려주리오

대봉은 날아올라봤지만 하늘 중간에서 꺾였고, 부상에서 노닐다가 왼 소매가 걸려버렸다.³²⁾ 이는 功臣으로서 세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말이다. 마지막에서 자신의 삶을 후인이 전한다고 해도 孔子가 없으니 누가 인정해 주겠는가라고 한탄한다. 자신을 인정해 주는 인물은 賀知章이 아니라 '孔子'정도의 큰 인물이다. 仙人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孔子처럼 세상을 바로잡을 현실의 공로를 세우는 면모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李白은 聖(仙人)과 俗(功臣)에서 진동하다가 본인이 원하던 功臣으로서의 자아를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만세에 격렬하게 휘몰아칠 바람으로 남아서(제3구) 후세의 인정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에 사는 우리조차도 李白을 위대한 '詩仙'으로 인정하고 추앙하되 '功臣'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현실이 아닌 가상의 환상세계에서 노니는 영원한 봉세의 화신이 된 것이다.

31) 李華는 <故翰林學士李君墓志并書>에서 "나이 62세에 불우하여 임종가를 읊고 죽었다(年六十有二不偶賦臨終歌而卒)"라고 하였다.

32) 《楚辭·哀時命》: "옷은 길어서 펼 수가 없고, 왼쪽 소매는 신령스런 나무에 걸려있구나(衣攝葉以儲與兮, 左袂挂於扶樽桑)". 王逸은 《楚辭補注》에서 "덕과 재능이 뛰어나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德能弘廣, 不得施用)"이라고 풀이하였다.

3. 結論

이상 본고에서는 李白의 대표적인 組詩인 <古風>59수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李白의 자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자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격 자아'와 '목적격 자아'라는 분석틀을 이용하였다. 목적격 자아는 타인이 자신에게 규정해주고 기대하는 像이다. 이 목적격 자아에 주격자아가 부합한다면 정체성을 확립하여 잘 적응하지만, 부합하지 않는다면 주격자아는 내적갈등과 분열에 빠져들 수 있다. 즉, 목적격 자아로 대변되는 타인들의 '사회적 인정'이 없다면 주격 자아는 자기를 억압하거나 자기 분열에 빠지고 만다.

李白의 경우, 타인이 李白을 바라보는 목적격 자아는 謫仙人이다. 이는 賀知章이 李白을 보고 평가하고 인정한 자아인데, 李白은 이 자아가 일단 마음에 든다. 李白의 仙人으로서의 주격자아가 賀知章이 부여한 목적격자아와 부합한 것이다. 그러나 李白은 또 다른 주격자아를 가지고 있다. 魯仲連처럼 공을 세우고 물러나는 功成身退를 이룰 수 있는 功臣으로서의 주격자아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李白의 功臣으로서의 주격자아는 인정하지 않는다. 타인들이 바라보는 李白의 像, 즉 타인들이 기대하는 목적격 자아는 仙人이지, 실제로 공을 세우는 功臣이 아니다. 타인들이 보기에 李白은 '천재적인 문학·예술의 재능은 뛰어날지 모르나 실제 정치적·실무적 공로를 세울 수는 없는 인물'이다. 그래서 李白의 功臣으로서의 주격자아는 갈등과 분열에 빠진다. 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李白은 이러한 상황에 한탄하기도 하고, 타인들의 인정 능력을 부정하기도 하며 내적 혼란과 고독에 빠져든다. 거대한 물고기, 봉황으로 표현되는 功臣으로서의 자아는 결국에는 窮魚등의 이미지로 전락해 버린다.

이러한 좌절 속에서 李白은 다시 仙人의 세계로 돌아간다. 賀知章이 이른바

편적된 仙人이니 원래의 자리인 仙人의 세상으로 귀환하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주격자아였던 仙人으로서의 자아로 돌아가는 것이며, 仙人으로서의 목적격 자아와 부합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李白의 주격자아는 仙人으로서의 자아와 功臣으로서의 자아가 존재하는데, 전자는 타인의 인정을 받고, 후자는 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타인들의 인정이 없이는 주격자아는 활성화 될 수 없다. 그래서 李白은 결국에는 인정을 받은 仙人으로서의 주격자아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 회귀는 어쨌든 자발적인 것이 아니기에 선인으로서의 주격자아를 자의 반 타의반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신으로서의 주격자아를 타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였다. 타인들은 자기들만의 프레임, 즉 자기들이 정해준 李白의 목적격자아에 비추어 李白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목적격자아에 맞게 李白이 행동하지 않을 경우 가차 없이 인정하지 않았다. 타인들이 정해준 목적격자아는 전술한 대로 '仙人처럼 비범하나 정치적, 실무적 능력은 없는' 자아이다. 仙人으로서의 자아를 인정해 주는 것은 賀知章 이래로 그의 작품에서는 王子晉, 上帝 등 상상 속의 가상 인물들뿐이었으며, 그를 인정해 주는 세계는 현실세계가 아닌 상상과 환상의 가상 세계였다. 결국 李白은 현실의 세상살이에서는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늘 고독하고 외로운 천재일 수밖에 없었다.

< 參考文獻 >

- 陳斐, <李白詩歌中的劍意象分析>, 《中國李白研究》, 黃山書社, 2007.
 張瑞君, 《李白精神與詩歌藝術新探》, 上海古籍出版社, 2012.
 瞿蛻園, 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98.
 安旗, 《李白全集編年注釋》上中下, 巴蜀書社, 1990.
 郁賢皓, 《李白大辭典》, 廣西教育出版社, 1995.
 郁賢皓, 《李白詩全集》, 三民書局, 2011.

- 이해원 저, 《李白의 삶과 문학》, 고려대출판부, 2002.
詹福瑞 外, 《李白詩全譯》, 河北人民出版社, 1997.
中國李白研究會 編, 《中國李白研究》, 2012年集, 2012.
王琦, 《李太白全集》, 中華書局, 2006.
이영주·임도현·신하운 역, 《이태백시집》 1권, 학고방, 2015.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 사월의책, 2017.
철학아카데미, 《처음읽는 독일현대철학》, 동녘, 2017.
악셀호네트 저,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7.
최우석, <李白 <古風>59首의 창작상의 '繼承'과 '創新'>, 《中國語文論叢》 71輯, 2015. 10.
강필임, <古風59수의 문학사상과 그 창작실천>, 《중국문학연구》 17집, 1998.
신하운, <詠懷詩 傳統속의 李白 古風五十九首 研究>, 《중국어문학지》 5권, 1998.
윤석우, <李白의 長安宮廷時期 社會的 關係網 구축 양상 小考>, 《중국어문학논집》 86집, 2014.

< Abstract >

A Study on Li Bai's Self-consciousness in <Gu-Feng>

Yoon, Seokwoo

In this article, I have looked at the work of Li Bai using the analytic framework of George Herbert Mead's objected self('Me') and subject self('I'), which appeared in Axel Honneth's theory of recognition. The objected self is the image that another person defines and expects to himself. In this sense, the subject self is formed in response to the objected self. If the subject self conforms to the objected self, the subject is well adapted to the identity, but if not, the subject self can fall into internal conflict and division. In other words, if there is no 'social acknowledgment' of others represented by the subject self,

the subject self suppresses itself or falls into self - division.

In the case of the Li Bai, there is an immortal in the subject self that the other person views Li Bai. Li Bai is very pleased with this self. However, Li Bai has another subject self. It is the self that have Secular success.

However, the people of the world do not recognize the self-consciousness of the Li Bai. The Li Bai images that others see, that is, the purposeful ego that others expect, is immortal. Therefore, LI Bai's subject self falls into conflict and division. In this frustration, Li Bai returns to the world of Immortal. This is to return to the self as a Immortal, and to correspond with the objective self as a immortal.

Key Words: Li Bai, GuFeng, immortal, subject self, objected self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7. 30	2018. 8. 10	2018. 8. 22	2018. 8. 28	2018. 9. 30